『過庭錄』 異本 序文의 相異性에 관한 연구

-전남대본 『熱河日記』의 改作 및 朴宗采와 관련하여-

서현경*

【국문초록】

연암 박지원에 관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인 『과정록』은 현재 박공서본, 서울대본, 열상본 등 세 개의 이본이 전한다. 그런데 박공서본에는 序文이 없고, 序文이 있는 서울대본과 열상본의 경우에는 그 서문에 적힌 제작연대 기록이 전혀 다르다. 이 연구는 『과정록』 서문 기록의 상이성에서 출발한다. 박종채가 최초로 마련한 초고본인 박공서본 『과정록』을 다듬은, 서울대본 『과정록』에는 서문에 '1822(壬午)년'부터 '1826(丙戌)년'까지 5년 동안 다듬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열상본 『과정록』은 이 서울대본을 다시 고쳐 최종본으로 완성하여 놓고는 '1813(癸酉)년'부터 '1816(丙子)년'까지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열상본의 자서는 '後序'가 아니라 분명히 '序'이다. 즉, 열상본의 자서가 '후서'라면 열상본을 마련하면서 누군가 서울대본의 '서'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서문을 나중에 덧붙인 상황이겠지만, 내용상 '自序'이면서 형태상 '後序'가 아니기에, 열상본의 서문은 서울대본의 자서를 폐기하고 새롭게 쓴 序이다. 한편, 열상본에서 적힌 제작연도는 바로 초고본인 박공서본을 만든 시기를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열상본에는 1831년의 추기가 있어 열상본의 서술의 마지막 시점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정록』은 朴宗采(1780~1835)의 작품이다. 본 연구는 우선

* 한국방송대학교

박종채가 朴宗侃의 改名인 근거를 남김없이 확인했다. 그리고 박종간의 호가 濁硏齋임을 밝혔고, 정작 박종간이 이름을 박종채로 개명한 것은 연암 사후의 일임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탁연재라는 서명을 사용한 자료와 박지원이 서거한 이후에도 종간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했다.

그런데 『과정록』의 제작시기와 작가인 박종채에 관한 정밀한 논의는 『과정록』 자체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물론, 연암의 작품들이 개작된 과정을 밝히는 작업에까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과정록』의 제작시기에 대한 변증은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시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과정록』의 작가에 대한 연구는 전남대본의 개작자를 추적하는 데 많은 암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열하일기』 定本의 성립시기가 적어도 1826년 이후로 내려오지 않는데, 전남대본 『열하일기』는 定本보다 선행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 완료는 개작자가 남겨둔 '병자년' 기록에 의거할 때 1816년 경이 분명하다. 한편, 1816년은 『과정록』의 초고본인 박공서본이 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핵심어 : 박공서본 『과정록』, 서울대본 『과정록』, 열상본 『과정록』, 전남대본 『열하일기』, 박종채

차례

1. 연구에 들어가며
2. 『과정록』의 자료 현황
3. 『과정록』 자서의 相異性과 텍스트 형성시기 문제
4. 『과정록』 이본의 성립과정과 시기
5. 연구의 의의 및 결론

1. 연구에 들어가며

『과정록』은 주지하다시피 박지원에 대한 전기적 자료로서 문헌적 가치가 큰 책이다. 『과정록』의 출현으로 비로소 金澤榮이 쓴 本傳과 연보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정록』을 단독 주제로 논의한 논문[1]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해제가 아니면 작가 전기적 관심이 전부였다. 김영호, 임형택, 김영이 제출한 글은 모두 『과정록』의 해제였고, 김혈조, 정옥자, 김윤조의 논문 역시 작가 박지원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어 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현정의 "『과정록』 연구"와 김윤조의 "過庭錄에 나타난 연암의 몇 면모"에는 『과정록』의 이본 차이에 주목한 항목이 있어 시선을 끈다. 그렇지만 이 논문들에서는 『과정록』의 제작시기에 관한 모순점과 그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과정록』의 제 이본이 보여주는 제작시기의 모순점을 둘러싼 논란거

1) 金泳鎬, 「燕巖의 內面的肖像」-過庭錄解題-『文學思想』 5월호, 1974.
林熒澤, 「過庭錄해제」, 『韓國漢文學硏究』 6집, 1982./過庭錄下 凡例 『韓國漢文學硏究』 7집, 1984.
김혈조, 「過庭錄을 통해 본 燕巖형상」, 『民族文化論叢』 6집, 1984.
정옥자, 「연암 박지원의 인간상」, 『조선후기지성사』 일지사, 1991.
김영, 「과정록 해제」, 『洌上古典硏究』 8집, 1995.
李賢貞, 「『과정록』 연구」, 啓明大碩論, 1996.
金允朝, 「過庭錄에 나타난 연암의 몇 면모」, 『韓國學論集』 32집, 1998.

리를 처음으로 다룬다. 그리고 본 논문은 『과정록』 제작시기에 관한 기록의 모순점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시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2. 『과정록』의 자료 현황

『과정록』은 주지하다시피 1974년 『문학사상』(5월호와 6월호[2])에 두 번에 걸쳐 「나의 아버지 朴燕巖」이란 제목으로 宋旭이 번역·등재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김영호[3]에 의하면, "이 책은 정다산의 장자 유산 정학연의 유산총서 중의 한권이라 한다.(정해창씨 소장) 이 책의 표지에 「유산총서」로 되어 있고 내용은 <열하일기> <과정록> <과농소초> 등이 각 一冊씩인데 아마도 정유산이 이를 간행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유산총서> 가운데 박연암 관계 이외 다른 실학관계 저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은 후손가와 서울대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있다."고 했다.[4] 그런데 『문학사상』에 게재된 자료사진 한 컷을 보면 규장각본 『과정록』과 완전히 일치하며, 심지어 먹물이 잘못 떨어진 흔적까지도 동일하다. 더구나 『문학사상』에 게재된 것이 『과정록』이 최초로 소개된 지면이었기 때문에 사진 자료만 규장각본을 사용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해창씨가 소장했

2) 5월호는 371~395쪽, 6월호는 342~365쪽이다. 이 인용 호수와 관련하여는 일부 논문들에 오류가 반복되고 있어 재인용시 주의를 요한다.

3) 『문학사상』 5월호, 1974. 396~397쪽.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과정록" 설명에 의하면, 이는 丁若鏞의 맏아들 學淵의 『酉山叢書』 중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본으로 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문학사상 5월호에 실린 김영호의 해제를 따른 것이다.

다는 유산총서의 일부로서의 『과정록』이 바로 오늘날 규장각본 과정록이라 알려진 자료와 같은 자료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5] 더구나 김영호의 설명 중에서 후손가와 서울대도서관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추정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한편, 1982년에 비로소 규장각본 『과정록』이 『한국한문학연구』 6에서 영인되어 소개되었고 그 후 『한국한문학연구』 6·7집에 수록된 과정록을 주대본으로 역주한 김윤조의 『역주과정록』(태학사, 1997)이 출간되었고, 열상본을 주대본으로 교주한 박희병의 『나의 아버지 박지원』(돌배개, 1998)이 출간되었다.

현재 원본자료로서 『과정록』은 朴公緖本[6], 서울대本[7], 洌上本[8]의 세[9] 종류가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영인자료는 각각 『한국한문학연구』

---

5) 규장각소장본에 대한 해제를 살펴보면 『과정록』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 『과정록』해제에 "현재 필사본으로 다수의 이본이 전한다"는 설명까지 있다. 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6) 연암 후손인 朴公緖가 대전에서 소장했던 『過庭綠手抄』이다. '燕巖山房'이라는 版心에 박혀진 罫線紙에 雜草된 것이었는데, 原本이 未定稿로 刪改·添入하거나 附箋紙가 붙여지고, 일부는 行草로 쓰여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임형택의 해제(『한국한문학연구』 7집, 1984)를 참조할 것.

7) 2권 1책. 현전하는 서울대본에는 박공서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8) 4권 2책. 『열상고전문학』 8집, 열상고전문학연구회, 1995.에 수록됨. 김영의 해제가 있다.

9) 임형택의 해제(『한국한문학연구』 6집, 1982)에 따르면, "이가원 박사의 梅花老屋에 一本의 珍藏이 있기로 대조해본 바 이 역시 서울대본에 나오지 않는 기록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가원의 논문(『연암집』 일서·일문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회, 1968.5.)에는 4권 2책의 『과정록』이 소개되어 있다. 임형택이 검토한 '一本의 珍藏'이 이 4권 2책의 『과정록』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대본에 나오지 않는 기록은 볼 수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 서울대본과 다르지 않는 2권 1책 분량 정도의 『과정록』을 본 것이 틀림없다. 결국 임형택의 위 검토결과를 신뢰한다면, 결국 서울대본과 다르지 않은 『과정록』(2권 1책으로 추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가원의 위 논문에 소개된 4권 2책의 『과

6·7집(1982·1984)과, 『열상고전문학』 8집(1995)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한문학연구』 6집에는 규장각본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한국한문학연구』 7집에는 박공서본 가운데 규장각본에 없는 후반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우성이 교열하고, 허말수·송명신이 옮겨 정사한 것[10]이다.

3. 『과정록』 자서의 相異性과 텍스트 형성시기 문제

3.1. 『과정록』 자서의 相異性

『과정록』 텍스트의 형성시기에 관한 정보는 『과정록』 자서에 담겨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록』 自序가 異本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박공서본을 개작한 서울대본 『과정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11]되어 있다.

정록』이 열상본 『과정록』(4권 2책)과 어떤 관계인지도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 일단 동일한 책이리라 추정은 되지만, 만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별도의 이본이 하나더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임형택이 본 것과 이가원이 위 논문에서 소개한 것이 모두 열상본 『과정록』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그 존재가 확실한 박공서본, 서울대본, 열상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가원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사사한 허경진의 믿을만한 증언에 따르면, 이가원이 소장한 『과정록』이 바로 열상본 『과정록』이며, 별도의 『과정록』을 따로 소장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다. 이 말에 따를 때 임형택이 과정록 해제(『한국한문학연구』 6집, 1982)에서 살펴보았다는 매화노옥본 『과정록』이 열상본 『과정록』이었고, 임형택의 『과정록』 대조에 착오가 있었던 듯 싶다.

10) 위의 책, 같은 곳. 다만, 『한국한문학연구』 7집, 1984.의 정사본은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誤字가 있다.

11) 自壬午(1822)春 始今五年矣 乃刪其繁縟 去其重複 凡二百有餘條 頗有據聞直錄 若欠愼重 而未敢輒事刪削者 以先君之風采神韻 猶或可想見於此等處 覽者或恕之歟 丙戌(1826)秋 不肖宗采泣血謹書

> **임오년**(1822) 봄부터 시작하여 이제 5년이 되는 셈이다. 마침내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중복된 것을 없애니 2백여 조목이 남았다. 자못 들은 대로 기록하여 신중함이 결여된 듯도 하지만 감히 함부로 덜거나 깎아내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풍채와 정신이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읽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 **병술년**(1826) 가을에 불초 종채가 울며 삼가 쓴다.

한편, 열상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12]되어 있다.

> **계유년**(1813) 봄부터 시작하여 이제 4년이 되는 셈이다. 마침내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중복된 것을 없애니 2백여 조목이 남았다. 자못 들은 대로 기록하여 신중함이 결여된 듯도 하지만 감히 함부로 덜거나 깎아내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풍채와 정신이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읽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 **병자년**(1816) 초 가을에 불초아들 종채가 울며 삼가 쓴다.[13]

열상본에서 텍스트의 형성시기로 밝힌 계유년(1813)부터 병자년(1816)까지의 기간과, 서울대본에서 밝힌 형성시기인 임오년(1822)부터 병술년(1826)까지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14]이다). 이는 곧 『과정록』이라는 텍스트의 형성시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과정록』의 형성시기를 변증하는 문제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과정록』 자체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과정록』에 기록된

---

12) 自癸酉(1813)春 始今四年矣 乃刪其繁縟 去其重複 凡二百有餘條 頗有據聞直錄 若欠愼重 而未敢輒事刪削者 以先君之風采神韻 猶或可想見於此等處 覽者或恕之歟 丙子(1816)孟秋 不肖男宗采泣血謹書

13) 또한, 박공서본이나 서울대본에 없는 追記가 열상본에 있는데, 그 맨 끝에 "仍追識於此如右 辛卯(1831)孟春 不肖男宗采書"라 하였다.

14) 참고로 초고본인 박공서본에는 『과정록』 자서가 없다.

다른 사실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특히 박지원의 대표저술인 『열하일기』의 개작시기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2. '박종채'의 정체와 이름의 사용 시기

『과정록』을 작성한 사람은 박종채라는 한 사람인데,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말을 남기고 있으니, 우선 朴宗采라는 인물부터 따져보기로 한다.

『과정록』을 정리한 박종채(1780~1835)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박종채는 『과정록』에서 자신을 박지원의 '不肖(男)'[15]이라고 했고, 박지원을 '先君'이라 했으니, 박지원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반남박씨세보』에 따르면, 박지원은 아들이 둘이다. 長子가 '宗儀'이고, 次子가 '宗侃'이다. 종의는 1778년 연암의 형인 朴喜源(1730~1787)에게 출계하였으니, 박지원의 대를 이은 것은 종간이다. 1974년 최초로 『과정록』을 번역했던 송욱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석에서 『과정록』 자서에 기록된 박종채가 바로 박규수의 선친이라고 했다. 물론 김윤조의 『역주과정록』과 박희병의 『나의 아버지 박지원』에서도 지적했듯 박종채는 박종간의 改名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그 근거를 분석적으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종채'라는 이름을 서명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밝히는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종채'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는 책을 대상으로 필사시기를 밝힐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등등은 아울러 거론될 기회가 없었다.

서울대 박물관소장 『연암선생서간첩』[16]에 따르면, 박지원이 차자인 박

15) 서울대본에는 '不肖', 열상본에는 '不肖男'으로 적혀있다.

종간에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 정사(1797)년 7월 15일경이다. 연암이 60세이고, 박종간은 17세이던 때이다. 박지원은 '宗何'라는 이름과 '可人'이라는 字를 추천했다.

그러나 박종간이 정작 이름을 박종채로 개명한 것은 연암 사후의 일이다. 이는 박종채가 박지원이 서거한 이후에도 종간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자료가 남아있기에 알 수 있다. 이가원의 조사보고[17]에 따르면, 『燕巖集補遺』(小題: 熱河日記補遺第三) 첫 장의 「熱河日記補遺」 밑에 다음과 같은 小記[18]가 있다.

> 옛 대광주리를 열어 보았다가 필담 초록한 것 수백 개를 찾아냈다. 이것 저것 쓰인 것이 너무 어지러워서 잘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필법과 문답한 사건을 가지고서 간신히 구별은 할 수 있었다. 다만, 누구와의 수작이라는 표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문답으로 삼고, 한 글자 낮추어 쓰는 것을 중국인의 문답으로 삼아 범례를 만든다. 아들 종간이 삼가 모았다.

따라서 박종채로 서명한 자료들은 적어도 연암이 서거한 1805년 이후 작성된 자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본고의 대상인 『과정록』 자서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서울대본은 병술년(1826)에 자서를 썼다 하고, 열상본은 병자년(1816)에 자서를 썼다 하며, 辛卯(1831)에 追記를 썼다 한다. 그렇다면 박종채는 1816년, 1826년, 1831년 당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 인물

16)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박희병역, 돌배개, 2005. 78쪽, 136쪽 참조.

17) 이가원, 「『燕巖集』 逸書·逸文 및 附錄에 대한 小攷」, 『국어국문학』 제39·40권, 국어국문학회, 1968.5. 165쪽.

18) "披閱舊筐 得談艸數百頁 雜書胡亂 不可考 然只憑筆法及問答事件 可得區別 但無標別 某人酬酌 故今以元○(판독불능) 爲先大人問答 低一字書 爲華人問答 以爲凡例 男宗侃謹輯"

이다. (그런데) 박지원의 장자 宗儀는 1815년에 사망했다. 참고로 1848년 憲宗 14년, 增廣試 丙科 25등으로 문과에 급제한 박규수의 『문과방목』 기록에도 박규수의 아버지를 '박종채'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박규수는 박종의의 아들[19]이 아니다. 따라서 『과정록』 자서의 기록은 스스로 박종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박종간 즉, 박종채는 49세 때인 1829년 임시직인 假監役(순조29년 6월24일 임명)을 시작으로, 이듬해 駙馬房 修理監役(순조30년 4월 28일 임명)를 거쳐, 53세 때인 1833년 慶山縣令(순조33년 12월 22일 임명)되었고, 55세 때인 1835년(헌종1년 11월) 경산현령으로 재임 중 사망[20]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행적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관리생활을 하기 전까지 박종채는 자신의 아버지 박지원의 저작들을 발굴·정리하고 정성껏 다듬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본고에서 다루는 『과정록』은 물론이고, 연암집의 연암산문과 『열하일기』, 『과농소초』 등등이 그 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燕巖集補遺』(小題:熱河日記補遺第三) 첫 장의 小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박종채는 박지원 사후부터 흩어진 저작을 힘써 모았으며, 특히 1807년에 박종채가 고쳐 묶은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21]에는 "濁硏齋"라는 署名이 분명하다. 탁연재의 정체를 알려면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 박물관소장 『연암선생서간첩』[22]을 다시 살펴보

19) 박종간 즉, 박종채(1780~1835)는 『반남박씨세보』에 따르면 珪壽·珠壽·瑄壽의 三男을 두었다. 이 가운데 차남인 주수가 伯父인 宗儀에게 출계했다.

20) "慶尙監司趙秉鉉 以慶山縣令朴宗采身死 馳啓 敎以令該曹口傳差出 不多日內下送", 『承政院日記』 憲宗1年 11月 24日條.

21)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소장본.

22) 박희병(2005), 78쪽, 136쪽.

아야 한다. 박지원은 정사년(1797) 7월 15일 탁연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말미에는 서명을 "아버지(阿翁)"이라 했는데, 이로 볼 때 박종채에게 보낸 것이 분명[23]하고, 게다가 수신자인 탁연재에게 "너의 이름(汝名)"이 박유선의 아들[24]이름(박종간)과 같아서 불만이라고 했으니 탁연재가 朴宗侃, 곧 박종채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을 정리한 탁연재가 박종채(1780~1835)임을 확인하였으니,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이 丁卯年, 즉 1807년에 정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이 서거한 1805년으로부터 2년 뒤이다. 그리고 적어도 1813년부터 1816년까지와 1822년부터 1826년까지, 그리고 박종채가 죽기 5년 전인 1831년에도 『과정록』과 관련된 끊임없는 작업을 했음을 『과정록』의 이본들의 自序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3. '연암산방' 판심과 전남대본 『열하일기』

한편, 여기서 잠깐 앞서 언급된 '연암산방' 판심에 대하여 다루어 본다. 김영진의 조사[25]에 따르면, 연암 후손가에 있는 『課農小抄』(1책), 『雲山萬疊堂集』(1책), 『煙湘閣集』(1책), 『過庭錄』(1책) 등과 일본 천리대도서관에 있는 『孔雀館集』(3책), 서울대중앙도서관에 있는 『燕巖諸閣記』(1책), 고려대 만송문고의 『三韓叢書』(3책), 고려대 신암문고의 『御製策問(1795)』(1책), 이가원 구장의 『孔雀館集(楊梅詩話)』, 문우서림의 『紀年

23) 1797년 당시 박지원은 자신의 형 박희원에게 출계한 長子 박종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발송자 서명을 반드시 "작은 아버지(仲父)"라고 썼다.

24) 박희병의 앞의 책 78쪽의 설명을 따르면, 박유선의 아들은 朴宗幹을 말한다. 박유선은 世孫講書院 諭善으로 정조를 가르쳤던 朴聖源(1697~1757)이며, 본관은 밀양이라 한다.

25) 김영진, 「조선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이혜순 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兒覽』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박지원이 안의현감시절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편, 박수밀의 조사의 조사도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26] 한양대본 『燕巖集』(3책), 이대본 '연암산방집'(가제 1책) 등도 현재 '연암산방' 판심의 자료로 확인되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 역시 대개 『연암집』의 <연상각선본>에서 해당하는 작품이라 한다. 주지하다시피 <연상각선본>에 수록된 작품들은 「회우록서」, 「초정집서」 등등의 몇 작품을 제외하면, 거의 안의에서 벼슬할 때 글들이다. 다만 연암산방 판심이라 하더라도 『과정록』 즉 박공서본 『과정록』은 분명히 연암 사후에 작성된 글이 분명하고, 한편 최종본인 열상본 『과정록』은 연암산방판심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연암산방' 판심의 私稿紙는 대개 연암의 안의현감시절[27]을 포함하여 연암 사후까지도 일정한 시기동안 만큼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위에서 김영진, 박수밀이 소개한 자료 외에도 '연암산방' 판심의 사고지를 사용한 책으로 전남대본 『熱河日記』,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 등을 더 꼽을 수 있다. 특히,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은 '연암산방' 판심의 사고지를 사용한 시기에 대해 추정이 아닌 구체적인 연대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이 『考定忘羊錄(燕巖集)』도 '연암산방' 판심을 사용하였다. 다만 이 책은 맨앞 3장과 맨뒤 3장만 연암산방 판심의 사고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연암산방 판심이 없는 사고지를 사용했다.[28] 그런데 이 책에는 "元本中落漏 謄入次"라는 종이가 첫장에 덧붙어 있어 『열하일기』를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빠졌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은 위에서

26) 서면이 아닌 구두 전언이었다.

27) 연암은 1791년 12월에 안의현감을 제수 받아 1792년 1월에 임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현감생활을 시작한다.

28) 『考定忘羊錄(燕巖集)』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김영진은 앞의 조사에서 이 책을 연암산방 판심이 아닌 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밝혔듯 탁연재가 엮은 것이고, 탁연재가 박종채임은 이미 밝혔다. 그리고 "丁卯重訂"은 박종채의 생전(1780~1835)인 1807년임에 분명하다. 1807년은 박종채의 나이 28세인 해이다. '연암산방' 판심의 사고지는 실제로 박종채의 활동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전남대본 『열하일기』 역시 '연암산방' 판심을 사용한 사고지로 만든 책이다. 전남대본은 『열하일기』의 대표적 개작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남대본 『열하일기』는 작가보호적 개작태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본이어서 개작주체가 후손일 것임[29]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더구나 연암산방의 판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 시기가 1807년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일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30] 그런데 전남대본 『열하일기』에는 다른 이본에 없는 다음의 주석이 첨기되어 있는데, 주석을 붙인 구체적 시기를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 …여러 대가들의 인용서들은 보이지 않으니 역시 괴이하다. 병자년 임피 관아에서 쓰다(…諸家引用書無見 亦是可怪, 丙子書于臨陂衙軒)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주석을 단 시점인 병자년이다. 이 병자년은 1816년이거나 1876년이다.[31] 그런데 연암산방의 판심을 사용한 것으

---

29) 이런 의미에서 개작 주체가 박종채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수준과 개작태도는 박종채가 엮은 『과정록』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되어 이러한 추정에 크게 힘을 실어준다. 과정록의 개작태도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李賢貞, 「『과정록』연구」, 啓明大碩論, 1996.를 참조할 것.

30) 실제로 박지원이 자기 생전에 정리한 연암집 초고들에는 '연암산방'의 판심이 없고, 열상본 『과정록』이나 定本系 『熱河日記』에는 '연암산방'의 판심이 없다. 즉, 박종채의 활동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암산방'의 판심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1) 1816년 이전 병자년인 1756년은 박지원이 열하에 다녀온 1780년보다도 이전이고, 1876년 다음의 병자년인 1936년은 이미 박영철본 『열하일기』마저 출간되어 있는

로 보아 1807년과 가까운 시기는 1876년보다는 1816년이다. 따라서 전남대본 『열하일기』는 1816년경 박종채가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싣기 위해 1816년과 1876년에 대해 조금 더 상론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임피 관아에서 위 주석을 썼다고 했으니, 병자년과 임피현감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876년은 박종채(1780~1835)의 활동시기가 아니다. 1876년은 오히려 박종채의 아들인 박규수(1807~1876)가 죽은 해이다. 이 시기는 정치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1875년 9월 일본이 雲揚號事件을 일으켰고, 이에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체결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과정에서 박규수는 오경석과 함께 애를 썼다 한다. 또한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 박규수 개인에게 있어서 1876년은 古稀가 되어 水原留守로 물러나 있다가 얼마 안 있어 죽은 해이기도 하다. 어느 모로 보나 전라도 임피에 내려가 『열하일기』에 주석을 달고 있을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1876년 당시 임피고을은 臨陂縣令 姜穎秀(고종12년인 1875년 1월 27일에 임명됨)가 불과 1년 반 만에 체직되고 李喬榮이 새로운 臨陂縣令(고종 13년인 1876년 7월 6일 임명)으로 부임하는 상황이었기에 식객이 가서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최고위층이었던 박규수가 임피에 식객으로 가 있을 상황도 이유도 없었다.

한편, 1816년의 병자년에 臨陂縣令은 尹五榮[32]이었는데, 그는 순조12인 1812년 4월부터 순조16년인 1816년 12월까지[33] 임피에서 안정적으로

시기이기에, 박영철본에 영향을 준 전남대본 『열하일기』가 박영철본보다 나중에 만들어 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병자년은 1816년과 1876년이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존재한다.

32) 尹五榮은 본관이 坡平이고, 그의 부친은 尹景和이고 조부는 尹在泰이다. 아들 尹堉은 憲宗10년인 1844년 增廣試 丙科 27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33) 참고로 박종채가 열상본의 자서에 밝혀 놓은 『과정록』의 저술 시기는 1813년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무평가도 좋았다. 1816년은 포의의 신분이던 박종채가 36세 되던 해이다. 박종채가 윤오영과의 어떤 친분으로 임피에 내려가 있게 되었는지는 남은 과제이다.[34]

한편, 1816년은 박종채는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선친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과정록』이다. 여기서 열상본 『과정록』 自序의 기록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 自癸酉春 始今四年矣 乃刪其繁縟 去其重複 凡二百有餘條 頗有據聞直錄 若欠愼重 而未敢輒事刪削者 以先君之風采神韻 猶或可想見於此等處 覽者或恕之歟 丙子孟秋 不肖男宗采泣血謹書

열상본에는 『과정록』 집필을 마친 시기로 "丙子孟秋"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55세를 일기로 죽은 박종채(1780~1835)에게 있어 병자년은 1816년 밖에 없다. 즉, 1816년 초가을 박종채는 『과정록』 집필을 마쳤다. 그리고 이 병자년에 '연암산방' 판심의 공책의 전남대본 『열하일기』를 손질하면서 주석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에 의할 때, 열하일기 定本의 성립시기가 적어도 1826년 이후로 내려오지 않는데, 전남대본 『열하일기』는 定本보다 선행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전남대본 『열하일기』의 병자년은 결정적으로 1816년일 수밖에 없다.[35] 따라서 전남대본 『열하일기』 성립시기의 최하한선은 1816년이다. 전남대본 『열하일기』를 박종채가 임피현 관아에서 손질한 것이라면, 같은

1816년까지이다.

34) 윤오영도 박종채만큼이나 생애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인물이다. 자료 발굴과 함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5)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후속 논문인 「열하일기의 연구」를 참조할 것.

해에 정리된 『과정록』도 임피현에서 완성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 『과정록』 이본의 성립과정과 시기

열상본을 초고본과 견주어 꼼꼼히 교주한 박희병의 견해를 따른다면, 『과정록』은 초고본인 박공서본을 서울대본(2권 1책)으로, 다시 열상본(4권 2책)으로 개작되어간 것이 거의 분명하다. 특히, 열상본 1권 말미의 46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기사에서는 초고본인 박공서본과 서울대본에 담겨진 내용이 열상본에도 일단 실렸다가 다시 지워져 눈길을 끈다. 참고로 지워진 열상본의 내용[36]은 다음과 같다.

> 돌아가신 아버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젊었을 적에 일찍이 쓰고 남은 돈 이천이 있기에, 네 어머니의 의복이 해진 것을 염려해서, 옷을 마련해다 주었더니, 네 어머니가 말하길 '큰 형님이 이 집안 살림을 맡으셔 곤고하신데 어찌자고 이런 것을 우리 방에 사사롭게 들이십니까?' 했다. 그때 내가 그 말에 몹시 부끄러웠기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 구절은 어머니를 높이려다 도리어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이라 여겨 최종본인 열상본의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본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다.

더구나 열상본 『과정록』의 맨 마지막 추기[37]에는 열상본 최종 완성 시기를 박종채가 51세였던 "辛卯(1831)孟春"이라고 아예 직접 언급하고 있

36) "先君嘗言 吾少時 嘗有用餘錢二千 念淑人衣具缺用 齎衣襆以遺之 淑人言 伯嫂中饋常艱乏 何乃以此入私室乎 吾時甚慚其言 至今不能忘也"

37) "仍追識於此如右 辛卯(1831)孟春 不肖男宗采書"

다. 그리고 열상본에는 초고본인 박공서본에도 없는 기사가 보충[38]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정록』의 自序가 이본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과정록』의 저술시기를 밝힌 기록 중에서, 열상본 『과정록』의 자서에 밝혀진 시기가 가장 앞섰는데, 정작 열상본은 가장 최후에 정리된 이본라는 모순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열상본 자서에 적힌 제작 시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초고본의 제작시기로 판단된다. 초고본인 박공서는 임형택의 표현을 빌[39] 未定稿로 刪改·添入하거나 附箋紙가 붙여지고 일부는 行草로 쓰여진 자료여서 박공서본이 초고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작 이 초고본에는 "自序"가 없다. 박종채는 아마도 초고본을 정리하여 깨끗하게 다시 쓸 때 서문을 붙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후 "壬午(1822)春"부터 "丙戌(1826)秋"까지 5년 동안 이 초고본을 다듬었고, 그 과정을 밝혀 놓은 것이 바로 서울대본 『과정록』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후 서울대본을 다시 고친 최종본을 마련하면서 비로소 처음 제작했던 시기[40]를 밝히는 쪽으로 그 自序의 내용을 변개시켰고, 이것이 바로 열상본 『과정록』인 것으로 판단된다.

---

38) 열상본 『과정록』 거의 맨 끝부분에 수록된 "先君於博奕諸器 皆知其法"으로부터 "招賢院碑 普光寺碑"까지의내용이다. 朴公緖본은 서울대본과 비교할 때 40여장이 더 있는데, 특히 박지원의 60세 이후의 행적이 비교적 소상하다. 열상본 『과정록』이 박공서본보다 내용면에서 더 풍부한 편이다.

39) 임형택(1984), 해제.

40) "癸酉春", 곧 1813년 봄부터 "丙子孟秋", 곧 1816년 초가을까지의 기간.

5. 연구의 의의 및 결론

과정록 이본의 성립과정에 대한 일 연구가 지닌 의의는 전남대본『열하일기』의 개작시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를 빌어 다룰 것이다. 더구나『과정록』에 실린 "著熱河日記 凡二十五編"의 기록[41]과 "先君文稿十六卷 熱河日記二十四卷 課農小抄十五卷 共五十五卷 旣未屬剞劂"의 기록[42]간의 차이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 역시 다른 기회를 빌어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형성시기를 1822년부터 1826년까지라고 밝힌 서울대본『과정록』과, 형성시기를 1813년부터 1816년까지라고 밝힌 열상본『과정록』의 차이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과정록』의 형성시기를 변증하는 문제는『과정록』자체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과정록』에 기록된 다른 사실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과정록』의 저자 박종채가 박종간인 근거를 남김없이 살펴보았으며, 박종간의 개명에 대한 논의가 1797년 7월 15일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간이 정작 이름을 박종채로 개명한 것은 연암 사후의 일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박종채로 서명한 자료들은 모두 적어도 연암이 서거한 1805년 이후 작성된 자료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박종채는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관리생활을 하기 전까지,『과정록』,『연암집』,『열하일기』,『과농소초』 등등 선친인 박지원의 저작들을 발굴·정리하고 손보는 일을 자신의 평생과업으로 삼았다. 확인되는 것만도 박종채는 1807년에『丁卯重訂 考定忘羊錄(燕巖集)』을 엮었고, 1816년엔『熱河日記』

41) 박공서본, 서울대본, 열상본『과정록』권1.
42) 열상본『과정록』권4.

를 개작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과정록』의 이본들의 自序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1813년부터 1816년까지와 1822년부터 1826년까지, 그리고 사망 5년 전인 1831년에 『과정록』을 짓고, 손질하였다.

『과정록』이본의 성립시기와 관련해서는 박종채가 최초로 저술한 것이 초고본인 박공서본 『과정록』이고, "壬午(1822)春"부터 "丙戌(1826)秋"까지 5년 동안 이 초고본을 다듬어 놓은 이본이 서울대본 『과정록』이고, 서울대본을 다시 고쳐 최종본으로 완성한 이본이 열상본 『과정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열상본은 그 자서에서 처음 초고본을 제작했던 시기를 밝혔고, 1831년의 추기를 기록해 놓아 이후 『열하일기』 연구에 매우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承政院日記』 純祖12年(壬申)乙卯條, 純祖16年(丙子)辛巳條

『考定忘羊錄(燕巖集)』(단국대소장본) 표지기록

저서 및 논문

이가원, 「『燕巖集』 逸書·逸文 및 附錄에 대한 小攷」, 『국어국문학』 제39·40권, 국어국문학회, 1968. 5.

金泳鎬, 「燕巖의 內面的肖像」-過庭錄解題-『文學思想』 5월호, 1974, 396~397쪽.

林熒澤, 「過庭錄해제」, 『韓國漢文學硏究』 6집, 1982, 191~198쪽.

_____, 過庭錄下 凡例, 『韓國漢文學硏究』 7집, 1984, 229쪽.

김혈조, 「過庭錄을 통해 본 燕巖형상」, 『民族文化論叢』 6집, 1984, 39~60쪽.

정옥자, 「연암 박지원의 인간상」, 『조선후기지성사』 일지사, 1991.

김영, 「과정록 해제」, 『洌上古典硏究』 8집, 1995, 361~362쪽.

李賢貞, 「『과정록』 연구」, 啓明大석사학위논문, 1996, 17~40쪽.

金允朝, 「過庭錄에 나타난 연암의 몇 면모」, 『韓國學論集』 32집, 1998, 248~256쪽.

_____, 『역주과정록』, 태학사, 1997, 305~396쪽.

박희병,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배개, 1998, 275~399쪽.

_____,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배개, 2005, 78~79쪽, 136쪽.

이혜순 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Abstract

The Study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of Variant's Preface of KWA-JUNG-ROK過庭錄

- In relation to Revision of YOL-HA-IL-KI熱河日記 of CHUN-NAM Univ. manuscript全南大本 and PARK, Jong-CHAE朴宗采 -

Suh, Hyun-kyoung*

KWA-JUNG-ROK過庭錄 is the recordings on the process of life of PARK, Ji-Won朴趾源. The Variants of KWA-JUNG-ROK過庭錄 are PARK, Kong-Seo manuscript朴公緖本, SEOUL Nat'l Univ. manuscript서울대본, and YOL-SANG manuscript洌上本. PARK, Kong-Seo manuscript朴公緖本 has no preface. and SEOUL Nat'l Univ. manuscript서울대본 and YOL-SANG manuscript洌上本 have preface. but the writing duration of KWA-JUNG-ROK過庭錄 is differently recorded in each preface. This study starts with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of Variant's Preface. PARK, Jong-CHAE朴宗采 is the author of KWA-JUNG-ROK過庭錄.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followings.

1. Examining the grounds that PARK, Jong-CHAE朴宗采 must be the changed name of PARK, Jong-Kan朴宗侃

2. Discovering that THAK-YON-JAE濁硏齋 is the pseudonym of PARK, Jong-Kan朴宗侃

3. Revealing that PARK, Jong-Kan朴宗侃 had changed his original name to PARK, Jong-CHAE朴宗采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PARK, Ji-Won朴趾源.

This discussion can draw a deduction that the Revision period of YOL-HA-IL-KI熱河日記 of CHUN-NAM Univ. manuscript全南大本 and PARK, Jong-CHAE朴宗采 must be its reviser. It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key words

Kong-Seo manuscript朴公緖本, SEOUL Nat'l Univ. manuscript서울대본, YOL-SANG manuscript洌上本, YOL-HA-IL-KI熱河日記 of CHUN-NAM Univ. manuscript全南大本, PARK, Jong-CHAE朴宗采